

◎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4년도 표어 ◎

성령과 말씀이 충만한 사도적 교회

◎ 생활지침 ◎

1. 거듭난 사람
2. 성숙한 신자
3.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천국시민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65-18 전화 / 517-7651 ~ 5 팩스 / 512-1225

1994년도 우리교회 주요 사업계획

21세기를 향하여

구원의 복음 속에 담긴 사도적 사명과 예언자적 비판의식을 바르게 적용해가되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감격을 가지고

우리는 1994년도에도 다양한 사업과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성령과 말씀이 충만한 사도적 교회를 이루자’는 1994년도 목회지침에 따라 우리는 모든 행사를 진행해 감에 있어 구원의 복음 속에 담긴 사도적 사명과 예언자적 비판의식을 바르게 적용해가야 할 것이다. 또한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감격을 갖고 우리 개인과 교회가 거듭난 사람, 성숙한 신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천국시민으로서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모든 프로그램에 우선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갈망과 겸손함의 기도, 그리고 말씀에 절대 순종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리라고 생각한다.

행사를 행사로만 치르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포의 사명, 봉사의 사명, 친교와 교육의 사명을 다하자. 하나님과의 관계와 자기 자신을 발견해 가는 일에서 성장하며 이웃과 더불어 일하기를 배워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한 해가 되자.

1월

- 2일 / 신년예배(성찬식)
- 2일 / 공동의회
- 2일 ~ 10일 / 청지기수련회
- 교회학교 겨울수양회, 겨울성경학교 시작
- 지역장, 다락방장 세미나

2월

- 교회학교 겨울수양회, 겨울성경학교
- 춘계 장학금 수여
- 새가족환영회

3월

- 대심방
- 27일 ~ 4월 2일 / 고난주간
- 28일 / 제 5학기 목회자 세미나 개강 (5월 30일까지 매주 월요일)

4월

- 3일 / 부활절(성찬식, 특별찬양예배)
- 새가족 환영회

5월

- 가정의 달(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
- 5일 / 제 2회 한교회·한가족·한마음 축제
- 25일 / 제5차 김치세미나 개최예배(6월 2일까지 9일간)

6월

- 2일 / 제5차 김치세미나 폐회예배
- 5일 / 공동의회(안수집사, 권사 선거에 관한 건)
- 6일 / 홍해작전 개전(6월 19일까지 14일간)
- 19일 / 안수집사, 권사 선거
- 19일 / 홍해작전 승전감사예배
- 새가족환영회

7월

- 3일 / 맥추감사절(성찬식, 감사찬양예배)
- 25일 ~ 28일 / 전교인 가족수련회 및 교회학교 여름수양회, 여름성경학교

8월

- 하계 봉사대 파송
- 추계 장학금 수여
- 새가족환영회

9월

- 5일 / 제 6학기 목회자세미나 개강 (11월 20일까지 매주 월요일)

10월

- 2일 ~ 11월 20일 / Vision 2000 운동 50일전도작전
- 3일 / 교회학교 교사체육대회
- 19일 ~ 22일 / 신임서리집사 면접
- 26일 ~ 29일 / 신임서리집사 교육
- 새가족환영회

11월

- 13일 / 추수감사 찬양예배
- 20일 / 추수감사절, 교회설립3주년 감사예배(성찬식)
- 20일 / Vision 2000 운동 승전감사예배
- 27일 / 집사안수 및 권사취임식

12월

- 4일, 11일, 14일, 18일 / 일꾼 임명식
- 24일 / 성탄축하의 밤
- 25일 / 성탄축하예배
- 25일 / 교회학교 졸업식
- 각 부서 총회
- 31일 / 송구영신예배



신년예배와 성찬식

처음이고 나중이신 주님 앞에서 새 날 주심을 감사하며 1994년도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구하였다.

창세기강해



하나님 없는 문화

(창세기 4장 16절 - 24절)

이 중 윤 (목사·당회장)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문화는 날이 갈수록 급속도로 세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문화가 발달하면 편리함이 오고 자유함이 오고 마침내 구원함에 이를 것이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나 이 문화는 우리를 구원하는 문화가 아니고 오히려 우리를 해롭게 하는 문화로 전락하고 맙니다. 일찍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났고, 가인은 아벨을 죽였으며 그 자손들이 만들어 낸 세상 모든 문화는 죄에 오염된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부패한 문화를 '가인의 문화' 혹은 '하나님 없는 문화'라고 하는데 이들의 부패한 양상은 어떠할까요?

1. 뿌리가 끊겨진 문화

"가인이 성을 쌓았다"(11절)는 것은 한 도시를 구축한 것을 의미합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인 다음 산으로, 들로 유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거한 땅 '돗'은 유리하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 땅에 가서도 그는 방황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가인은 성을 쌓고 집을 짓고 거주를 했을지는 모르나 불행하게도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영원한 평안이 없는 정신적인 방랑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쓴 '참회록'속에 "당신은 당신을 위하여 우리를 조성하셨나이다. 우리 마음은 당신 안에 설 때까지 평안이 없나이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에는 평안이 없고 불안과 공포에 떨 수 밖에 없습니다.

고대나 현대나 인간이 쌓아 놓은 모든 문명의 탑은 하나님 앞에서 뿌리가 끊겨진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 유명한 로잔언약에서 "모든 문화는 타락했고 죄로 오염되었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문화는 구원이 요청된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문화는 의지할 것이 없고 바랄 것이 없는, 뿌리가 잘려진 문화인 것입니다.

2. 하나님을 떠나 건조한 성(城)

가인은 아내와 동침을 하여 에녹을 낳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안정 속에서 살기를 소원했기 때문에 성을 쌓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인

의 아내는 누구였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창세기 5장 4절을 보면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고 했는데 영어성경에는 아들들과 딸들 (sons and daughters)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가인의 아내는 자기 동생일 수 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아브라함의 동생 하란의 딸입니다. 그때에는 근친 결혼이 허용될 수 밖에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수를 한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가인이 만들어 놓은 성은 좋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23절에 라멕은 아다와 쉴라 두 여인을 아내로 삼는 가장 악한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라멕의 노래는 인류에게 주어진 최초의 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라멕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살인한 것을 자랑합니다. 살인을 함으로 자기를 해하려는 사람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했다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문화가 악한 것으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 성은 불경한 성, 살인하는 성, 하나님이 떠난 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가인의 문화는 결국 인간이 공생하는 문화가 아니라 인간을 죽이고 해하는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3. 미(美)적인 것을 추구하는 문화

우리는 누구나 아름다운 것을 좋아하는데 라멕이 그러했습니다. 라멕의 아내인 아다의 이름 뜻은 '즐거움', '아름다움'이고 쉴라는 히브리어로 '머리를 이마에 덮이게 내려서 그늘을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 모든 것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가인의 후예로 므후야엘, 므드사엘 두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엘'이란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름에 하나님이 있다는 뜻까지 붙였으니 경건해 보이지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이 없는 가인의 제물처럼 눈에 보기에만 좋게 한 사람들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미 전문적인 예술이 출발합니다. 야밤은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고 유

발은 음악의 조상이 되며 두발가인은 무기를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타락한 문화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들이 쌓은 성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성이요 자기들이 스스로 안정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 교만의 성이었습니다.

다윗은 수금과 비파를 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아벨도 목축업을 했으나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열납하셨으니 음악 자체나 어떤 문화가 죄가 아니라 주신 자보다 주신 것을 더 기뻐하는 것, 그것이 가인의 문화입니다. 얻은 것만 좋아했지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 가진 잘못된 문화인 것입니다.

4. 교만한 문화

라멕의 시속에 "가인을 위하여는 별이 칠배일전데 라멕을 위하여는 별이 칠십 칠배이리로다"(24절)라는 말이 나옵니다. 얼마나 교만한 말입니까? 가인을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수를 다 처치함으로써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패한 인간 심성이고 인간 문화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다시 세상을 향하여 떠나려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대항하고 그것을 변화시키는 사역을 감당케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뿌리를 상실한 문화요, 가시적인 아름다움만을 추구하는 문화요, 교만에 근거한 문화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존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 세상 문화에 빠지지 말고 세상 문화를 변혁시키는 책임있는 신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 순례자 컬럼 ✦

시작하는 사람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다. 시작하기가 그만큼 어렵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 말이다. 어떤 일을 시작하려면 적어도 세밀한 계획과 필요한 자원이 따라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선할 것은 그 일에 대한 꿈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창조적인 지혜와 결단력이 있어야 하고 거기에 자기희생을 각오할 수만 있다면 일단 일은 시작할 수가 있을 것이다. 남의 흉내나 내고 남이 뒤따르는 터 위에서 안일주의에 빠져 인생을 소일하기 보다는 창조적 인물이 되어 무슨 일을 시작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위대한 것이다. 그러나 위대한 일을 시작하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임을 잊지 말자. 돈과 시간과 능력이 있다해서 할 일, 못할 일 다 시작해 놓고 이웃과 사회에 해를 끼치는 일은 시작하지 않아야 한다. 시작하되 옳은 것을 시작하는 용기와 믿음을 갖게 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시작해야 할 것이다.

✧ 새해소망 ✧

청년시절의 열심을 되찾아 헌신하는 한 해

유 숙 인 (집사·유년부 교사)

청년시절, 지방에서의 내 특정한 신앙생활과 봉사생활은 결혼과 함께 잠시 막을 내렸다. 핵가족 생활에서 누구의 도움도 없이 일주일 내내 아이와 씨름하던 씨름을 하다가 지쳐 버리기 일쑤였고 주일 예배시간조차 아이와 함께 씨름하느라 온전치 못하게 드러곤 했다.

그러던 어느 주일, 탁아부에 기웃거리게

되었고 용기를 내어 우는 아이를 떼어 놓고 홀가분하게 예배를 드려보았다. 그 예배가 얼마나 은혜스러웠던지 지금도 기억이 새롭기만하다. 그 후로는 주일이 영과 육이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쁜 날로 변하고 예배가 끝나 아이를 찾으러 갈 때는 탁아부 선생님에 대한 고마움을 '나도 아이들이 크면 탁아부 교사로 봉사해야지' 하는 다짐으로 대신하곤 하였다. 이젠 그 다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때가 된 것 같다. 둘째 아이까지 탁아부를 졸업하고 유치부에 가게 되었고 주보에 「교사모집」광고만 보면 나태하게 앉아있는 일꾼아닌 일꾼으로서의 죄스러움이 앞서니 말이다.

올해에야 비로소 일꾼으로서의 죄스러움을 떨쳐버리고 '주여 내가 가진 가능성도, 부족도, 그리고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도 주께서 다 아시나이다.'라는 두렵고 떨리는 고백과 더불어 과감히 교사를 지원하게 되었다. 아이들이 올해 7살, 5살밖에 사내들인지라 처음 결심처럼 I, II부를 봉사해야하는 탁아부에 지원하지 못하고 한 번의 예배만 드리는 유년부 교사로 지원하였다. 지난 12월 5

일 첫 주부터 출석해 보았더니 순진하고 친난만한 아이들의 모습에서, 또한 아이들을 향한 설교 말씀에서 새롭고도 놀라운 은혜를 덧입혀 주셨다.

아직은 일상의 일들에 교사의 직책을 부여받기가 두렵기도 하고 교회와 지도 목사님의 뜻에 부합하는 교사가 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서지만 '생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합당치 아니하다'는 말씀을 상기하며 다시금 무릎을 꿇는다. 결혼 전, 청년 때의 열심을 다시 내어 헌신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고프다. 내게 맡겨 주신 생명들을 성령의 인도따라 교육하여 거둬나게 하며, 주님을 만나게 하며, 그들 스스로 주님께 들고 간구하는 성숙한 신자가 되는 일에 투명한 도구로 사용되기를 바라는 마음만이 간절하다.

■ 학부모초청특강 ■

- * 일시: 1월 16일(주일) 11시 50분
- * 장소: 2층 집회실
- * 강사: 이학주 집사 (울산대 교수)

주최: 서울교회 고등부

이십여 년 전, 빌리그레함 목사의 여의도 전도집회에서 결단하고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중국 선교를 다짐한 적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작은 결단을 기억하시고 작년 가을, 중국과 러시아를 다녀

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다. 통상 사절단의 일원으로 방문의 기회를 얻은 것이었지만, 나에게는 선교지를 방문할 수 있는 첫 기회로 생각되었다. 철의 장막의 러시아, 만리장성의 중국... 그러나 모스크바시의 정경이 자리를 펼치듯 비행기 창에 펼쳐졌을 때 나는 나의 무지와 어리석었던 생각들에 부끄러움을 금치 못했다. 모스크바시를 동서로 횡단하여 흐르고 있는 모스크바강과, 청록색의 전원 도시는 한 폭의 풍경화였다. 공항에 내린 후 나는 그 나라 사람들의 영적 상태와 앞으로의 선교 가능성을 탐색하기에 매우 분주했다. 가지고 갔던 러시아어 성경책은 예수님에 대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는 어느 한 대학생과, 유아세례까지 받았으나 성경을 소유하지 못했다는 러시아 가이드에게 복음과 함께 전해 주었다.

마치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의 심정으로 모스크바 방문을 마치고 북경행 비행기에 올랐을 때, 이 민족도 우리에게 맡기셨구나 하는 확신을 주셨다. 중국에서는 한 가이드를 통해 북경 한인 교회를 찾아 주일 예배에 참석할 수 있었다. 이백 여 명 정도의 한국 대사관원들과 상사 직원들이 호텔의 대강당에 목사도 없이

✧ 새해소망 ✧

복음증거의 향도적 교회 되길

이 영 기 (장로·순례자 편집인)

철의 장막의 러시아, 만리장성의 중국... 통상사절단으로 방문의 기회를 얻었지만, 나에게는 선교지를 방문할 수 있는 첫 기회로 생각되었다. 중국과 러시아에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기억하며, 지구촌의 수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어서 속히 복음이 증거되기를 기도하게 되었다. 그간 서울 교회를 택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감사하며, 특별히 올해 5월, 러시아 형제들을 맞이할 제5차 김치세미나를 통해 이 시대에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조용히 기도해 본다.

모여 집사들끼리 돌아가며 말씀을 전하고 있었다. 한 대학의 총장과 가이드, 그리고 그의 친구에게 성경과 복음을 전했다. 그들이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마음속 깊이 느낄 수 있었다.

뛰어난 예술과 문학의 자취가 아직도 곳곳에 남아 있는 러시아, 그리고 웅장한 자금성과 만리장성은 옛 중국의 위력을 과시하기에 충분했지만, 하나님 없이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하의 지난 몇 십년은 그 나라들을 뿌리 깊이 멍들게 했고 국민들은 심

신의 허기를 면치 못하게 했다. 러시아의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물질 만능 사상이 그들 마음을 사로잡기 쉬운 이 때가 바로 선교의 적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다는 주님의 말씀이 더욱 실감이 났다. 부족한 나에게도 눈을 열어 보여 주신 중국과 러시아에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기억하며, 복음을 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지구촌의 수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어서 속히 복음이 증거되기를 기도하게 되었다.

그간 서울 교회를 택하여 구체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감사하며, 새해에는 더 깨끗한 그릇으로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교회가 되길 조용히 간구해 본다. 특별히 올해 5월, 러시아 형제들을 맞이할 제5차 김치세미나를 통해 이 시대에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새해에는 우리 교회를 통해 얼마나 많은 주의 일들이 이루어질까? 기대와 설렘으로 기도하며 새해를 맞는다.

새해에는 우리 교회를 통해 얼마나 많은 주의 일들이 이루어질까? 기대와 설렘으로 기도하며 새해를 맞는다.

선지자적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온 교인이 한 마음 되게 하소서.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성전기도 하라 하소서.

1994년도 남·여 전도회 임원

선교위원회(위원장: 오정수 장로) 산하 39개 남녀 전도회는 각 지회별로 다음과 같이 임원을 확정하고 올해도 '이 복음을 위해' 새로운 각오로 전도회활동을 시작하였다.

▶남선교회 임원

구분	제1지회	제2지회	제3지회	제4지회	제5지회	제6지회
요한	회장 부회장	이정수 구동철	김금주 김시환	임병권 김동연	조성재 안인호	이양철 박동식
		송인권 최재호				
베드로	회장 부회장	김승기 허상한	이호연 김인수	이재홍 임종수	박두호 황태진	이관규 이남성
		박민호 이승우				
바울	회장 부회장	이재권 김영주	윤찬오 오형철	김병용 송의웅	김승현 소정부	권영복 유 신
		이재운 이병생				
모세	회장 부회장	김일용 박춘봉				

▶여전도회 임원

구분	제1지회	제2지회	제3지회	제4지회	제5지회	제6지회
마리아	회장 부회장	김희영 채영애	구명덕 조성미	오규자 김남옥	제오복 곽명순	최승옥 금미선
		위성남 허 숙				
루디아	회장 부회장	김연옥 이혜순	황정남 최일춘	신순화 김희숙	한성옥 강희자	최영란 이영옥
		김정희 이인선				
에스터	회장 부회장	김연옥 이순례	정금봉 김윤자	김옥남 손재경	이부자 임순자	김순자 전정순
		김정수				
한나	회장 부회장	박순옥 송영강		양숙란 백영희		

다락방 활성화를 위한 교구일꾼 세미나

교구위원회(위원장: 노문환 장로)에서는 교구일꾼들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그동안 청지기수련회를 통해 1회만 실시하던 교육을 지역장, 남자 다락방장, 여자 다락방장, 권찰로 그 대상을 세분화하고 보다 실제적이고 전문화된 내용으로 실시한다. 확정된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지역장 세미나

- 대상 / 지역장(권사), 부지역장(집사)
 - 일정 / 1994년 1월 13일(목) 오전 10:30 ~ 오후 1:00
 - 예배 / 설교 - 이종윤 목사
 - 강의 / 심방과 상담 - 심상권 목사
- 다락방 성장을 위한 지역장의 활동지침 - 권상석 목사

▶남자 다락방장 세미나

- 대상 / 남자 다락방장
 - 일정 / 1994년 1월 18일(화) 오후 6:30 ~ 오후 9:30
 - 강의 / 남자 다락방장의 사명과 책임 - 이종윤 목사
- 다락방 성장을 위한 남자 다락방장의 활동지침 - 권상석 목사
토론 및 결단

■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837KHz) 「성경교실」 매주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기독교방송(HLKY 1188KHz) 「나의 갈길 다가도록」 매주 금요일 오전 9시 ~ 9시 30분
 아세아방송(HLAX 1566KHz) 「주일설교」 매 주일 오전 8시 ~ 8시 30분
 「주일설교 재방송」 매주 화요일 오전 4시 10분 ~ 4시 50분

▶ 선교지에서 온 편지

폴리 진료소 직원들과 시작한 성경공부를 통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성도님들의 간구는
 이곳에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를 노래하는 구세주의 탄생이 온 우주에 가득한 성탄을 맞아 성도님들께 문안드립니다. 한국은 지금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고 흰눈이 내리겠습니다마는 이곳 우간다는 전기와 열기로 한창 무더운 때입니다. 그런 중에도 성탄을 축하하기 위한 찬양연습이 시작되어 찬양의 즐거움이 충만합니다.

그동안 폴리(Goli)에서는 진료소 일을 하면서 직원들과 성경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공부하는 중에 새사람 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기도의 집」 준비와 파이다 교도소 전도사역을 놓고 기도 중입니다. 성도님들의 정성 어린 간구는 어떤 형태로든지 열매가 맺어지며 하나님께서 기뻐

하시느 일들이 일어납니다.

12월 4일부터 12일까지는 폴리지역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전도 집회와 제자훈련을 했는데 많은 도전을 받았고 주교의 친척 중에도 세사람이나 결신하여 영혼을 찾은 하늘의 기쁨에 찬양을 드렸답니다.

진료소에 종종 중환자들과 난산하는 산모들이 올 때면 진찰 즉시 인근 12Km 거리에 있는 병원으로 후송해야 하는데 산동성이 길이기때 차 속도는 느리고 마음은 조급해져 다만 생명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곤 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항상 동행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담대함과 믿음을 가질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통신망이 원활하지 못하여 이 서신이 아마 좀 늦게 도착하리라고 여겨집니다만, 이곳 여러분들의 성도들께 드리는 성탄 문안을 전합니다.

새해에도 변함없는 후원과 기도를 부탁드리며 성탄과 새해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과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서 작은 여종 김 정 윤 올림

서울주간기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1. 교회당신축을 위한 성전부지를 허락하옵소서.
2. 성령과 말씀이 충만한 사도적 교회가 되게 하소서.
3. 모든 악한 것을 버리고 주님을 높이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4. 거듭난 인간, 성숙한 신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천국시민의 삶을 살도록 하옵소서.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일 예배	I 부 오전 09:00
	II부 오전 11:00
	III부 오후 02:00
찬 양 예 배	주일 오후 05:00
수요 예배	I 부 오전 11:00
	II부 오후 07:00
금 요 기 도 회	오후 09:00
새 벽 기 도 회	매일 새벽 05:30

■ 교회위치

